

한국인의 세대별 한(恨) 표상의 차이*

이 재 호†

한(恨)은 한국인의 마음을 담고 있는 문화적 어휘로 알려졌고, Lee & Choi(2003)는 한(恨)의 문화적 표상을 규명하고자 1994년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중과제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한(恨)이 정서를 넘어 한국인의 문화적 경험을 담화적으로 표상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한(恨)의 문화적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도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선행연구의 방법을 연장하여 한(恨) 표상의 세대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험 1은 자유생성과제와 평정과제로 한(恨) 표상의 세대 차이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1994년도 세대보다 2019년도 세대는 정서 단어의 생성빈도와 평정강도는 증가하였지만 생성단어의 유형과 평정치의 편차가 심했다. 실험 2는 1994년도 세대 우세단어가 2019년도 세대 우세단어보다 명명시간이 빠르며, 문화자극과 세대변인 모두 과제유형과 상호작용하고, 두 세대의 빈도와 평정치가 일치하는 조건에서 문화변인의 점화가 촉진되는 결과를 점화명명과제에서 관찰하였다. 두 실험은 세대가 문화자극의 표상 차이를 야기하며, 한(恨) 표상이 세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2019년도 세대는 1994년도 세대보다 외현적 수준에서는 한(恨)을 보다 정서적 의미로 표상하지만 암묵적 수준에선 참조 대상과 사건 원인의 의미가 여전히 지속되는 표상을 유지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적 한(恨) 어휘의 표상이 시대에 점진적이며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실험적 방법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한(恨), 문화, 세대, 명명과제, 담화

* 이 논문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9S1A5A2A01043560),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도 받았다(IRB no. 40525-201909-HR-050-03).

† 교신저자: 이재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번지

E-mail: leejaeho@kmu.ac.kr

21세기가 2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에 더하여 환경과 문화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혼술' 혹은 '혼밥' 등은 더 이상 새로운 언어가 아니며, 가족의 축소 친족의 감소 등은 나 홀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예; Greenfield, 2000; 2017). 특히 COVID-19가 전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환경이나 사회의 다양한 변화는 개인의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며, 개인 간의 소통 관계는 개인이 보유한 기억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억의 내용은 대부분 언어로 표현되며, 전달되는 사회적 소통 또한 언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개인 간의 언어적 소통이 기억을 연결하며, 언어도 단일한 의미만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문자-상황-문화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며, 특히 언어의 의미에 작용하는 문화는 언어가 소통 공유하는 공간적 제약을 제공하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문화적 의미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Atran & Medin, 2008; Greenfield, 2000; 2017; Yang & Ho, 1988). 마음의 구성은 문화적 공간, 세대적 시간, 그리고 언어의 상징으로 구성되어 간다고 축약된다고 보겠다(D'Andrade, 2002; DiMaggio, 1997; Plotkin, 1994).

D'Andrade(1981)은 문화적 체계는 객관적인 감정체계와 더불어 참조체계도 함께 포함하여 문화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그 영향력의 내용은 자연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문화에서 사용되는 사물의 표현은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 문화에 따라 고유한 언어 형태를 지닌다. 단어의 어휘, 문장의 문법, 글말의 스타일 등이 언어

에 따라 다르듯이 언어가 지칭하는 사물도 정확한 의미가 언어에 따라 다르다. 더욱이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물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생성되었지만 그 의미의 표상에는 언어에 따라 다른 문화적 상징도 내포되어 있다(Chiu & Cheng, 2007; Hong, Morris, Chiu, Benet-Martinez, 2000). 예를 들어 '까마귀'는 어느 언어나 '새' 범주의 하위 구성 개념이다. 모든 언어는 '까마귀'가 '새'의 한 유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언어의 문자적 의미만으로는 '까마귀'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문화에서 '까마귀'는 '부정적 기분' 혹은 '흉조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오히려 '긍정 기분' 혹은 '길조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한 언어의 의미는 다른 언어 언어의 의미로 완전한 번역되기 어렵다는 증거이다(Chafe, 1990; Cousins, 1989; D'Andrade, 1990; Niiya et al., 2006). 즉 문화적 마음의 구성은 언어의 문화적 의미가 중요하며 그 의미에는 문화적 상징체계 즉 실세계 참조체계와 감정 혹은 정서 체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게 된다고 보겠다.

한국의 문화적 공간은 한국인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지각과 행동의 환경을 제공하며 한국의 공간에서 생성된 언어는 반복적인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국적 상징으로 추상화된 의미를 구축한다(예; Choi, 2011; Lee & Lee, 1998). 지속적인 경험의 추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적 변화가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예; Greenfield, 2017), 공간-시간-언어는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이 된다고 보겠다. 한국인에게 보편적이며 문화적이라고 간주된 독특한 단어인 한(恨)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어위는 한자에서 유래하였지만 한국인이 한국적 의미를 부여하여 추상화한 문화적 단어로

알려졌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 한(恨)은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어휘로 간주되었다 (Roo, 2020; Bang & Lee, 2007; Lee, 2020). 그러나 Lee & Choi(2003)는 한(恨)의 문화인지적 표상이 단지 문화적 정서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恨)은 ‘슬픔’, ‘고통’, ‘분노’, ‘그리움’, ‘공포’ 등의 특정 기본 정서에 범주화되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더불어 한(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표상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Choi(1994)는 한(恨)의 표상이 사건의 발생 초기에는 강한 부정 정서가 각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감정은 약화되어 기분의 상태로 변화하거나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恨)은 또한 억압 환경, 목표 대상이나 사건의 상실, 자신의 능력 한계에서 시발된다는 측면에서 사건의 원인 또한 다양하기에 한(恨)은 특정 정서보다 상위의 추상적인 삶의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면 모든 문화인은 문화의 의미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표상하는 것인가? 문화적 마음은 특정 문화에서 장기간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된 구성체이며, 의식적으로 자각되기도 하지만 암묵적이거나 자동적인 특징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DiMaggio & Markus, 2010; Lizardo, 2017). 문화적 마음의 이해는 외현과 암묵의 다수준적 처리 양상을 다양하게 관찰하는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겠다(예; Choi & Han, 2000; Greenfield, 2000; Magliano, & Graesser, 1991). 이러한 맥락에서 Lee & Choi(2003)는 다중 접근을 사용하여 한(恨)의 문화적 표상과 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선 문화적 마음의 내용

은 질적 방법인 자유생성과제(free generation task)를 적용하여 연상 내용을 수집하였고, 그 질적 자료는 평정과제(rating task)를 사용하여 질적 내용에 대한 양적인 정보를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마음을 실시간적으로 접근하는 점화어휘판단과제(primed lexical decision task)로 마음의 작용 과정을 관찰하였다. 다원적 접근은 문화적 마음의 질적이고 양적인 마음 내용과 의식과 암묵의 과정을 다차원적으로 관찰하는 잇점을 지닌다(예; Lee, 2012a; 2012b; Lee & Kim, 1998).

구체적으로 Lee & Choi(2003)의 연구는 문화적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고자 참가자 대학생에게 ‘한(恨)’ 단어를 제공하고 인출되는 연상 단어를 조사하였다. 실제 연구는 1994년에 실시되었고, 참가자는 그 당시 대학생들이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참가자가 개인당 평균 5.90(표준편차 2.5)개의 한(恨) 연상단어를 생성하였으며, 그 단어의 의미적 범주는 대상단어(36%), 정서단어(21%), 사건단어(14%), 행위/상태 단어(10%) 등으로 다양하였다. 한(恨)의 대상단어는 ‘여인’이나 ‘민족’을 연결하는 구체적 혹은 추상적 대상의 실제 문화 공간에 존재하는 참조어(referent)이며, ‘가난’은 한(恨)이 만들어지는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인과성의 의미를 지니며, ‘복수’나 ‘맷힘’은 한(恨)의 마음이 행동이나 심적 상태로 구성된 인지적 표상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면 한(恨)의 문화적 의미는 단일한 개념이나 정서를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한(恨)의 마음을 구현한 영화가 서편제였다(Choi, 2011). 영화의 주인공인 소리꾼 유봉, 그 딸인 송화, 그 아들인 동호는 각각 한(恨)의 발생 배경을 지녔으며, 유봉은 그 한(恨)을 송화에게 전이시키고, 동호는 한(恨) 발생 사건으로부터 도피 행위를

하며, 송화는 한(恨)의 심정을 가슴에 담아두며 살아가면서 한(恨) 발생 대상을 향한 행위는 판소리를 통한 승화로 표현되며, 동호와의 만남에서 한풀이로 만남을 승화시킨다(Im, 1993). 서편제는 개봉 당시 대표적 한국적 영화로 평가받았는데 그 연유는 영화의 담화 구조가 한국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공감이었을 것이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한국의 지리적 공간, 한국인의 주인공, 강점기 시대의 가난과 신분 제도, 정(情)과 한(恨)의 갈등 감정, 송화와 동호의 마지막 만남의 장면과 헤어짐 등의 담화적 응집성은 한국적 도식(Korean cultural schemata)에 대응되기 때문이다(예; Choi, 2011).

영화 서편제의 구성은 한(恨) 연상단어의 범주유형과 비견된다. 한(恨)의 주인공, 한(恨)의 발생 배경, 한(恨)의 행위, 한(恨)의 감정, 한(恨) 시대와 문화의 배경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영화 서편제와 Lee & Choi(2003)의 연구에서 얻어진 한(恨) 연상단어가 담화(discourse)의 상황모델(situation model)의 구성 체계나 자전적 기억 이론의 구성 내용과도 유사하였다(Graesser et al., 1994; van Dijk & Kintsch, 1983; Zwaan & Radvansky, 1998). 예를 들어 담화의 상황모델은 행위자(agent), 시간과 공간(time and space), 사건인과(event cause), 의도와 목표(intention and goal) 등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또한 Conway(2005)는 일생을 통한 자전적 기억 이론에서 개인의 자전적 기억은 문화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반복적인 일화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일화 기억의 내용은 사람(person), 위치(location), 행위(activities), 느낌(feeling), 목표(goals) 등이며 기억의 인출이 직접적이거나 의도적 생성 과정을 통해서 인출된다고 하였다. 이 이론들은 일반적인 마음의

인지적 표상은 세상에 대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개념화 하였고, 마음은 지각적 세상에 대한 표상과 지각적 표상의 설명을 제공하는 상위의 추상적 표상도 동시에 형성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었다(Barsalou, 1999; Schank, 1986). Chafe(1990)는 마음의 작동이란 모델을 형성하는 행위(model-building activity)라고 하였다. 주어진 자극에 대한 능동적 재구성과 정교화도 마음의 시뮬레이션 작동에 의해서 세상에 대한 능동적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담화나 기억의 이론을 문화적 사건에 적용하면, 문화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회 문화적 사건에 대한 능동적이고 정교한 표상을 통해서 세상을 의미 있게 구성하는 해석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추론된다(Choi, 2011; Lee & Lee, 1998).

한(恨)의 문화-담화적 특성은 무엇인가? Lee & Choi(2003)의 연구에서 한(恨) 단어의 점화로 생성된 연상단어는 ‘여인’, ‘민족’, ‘어머니’, ‘응어리’, ‘좌절’, ‘허무’ 등이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특히 생성 빈도가 높았다. 첫째, 이들 단어는 언어적 분석을 하더라도 단일한 품사가 아니며, 한(恨)은 일상에서 ‘한(恨)이 맺힌다’, ‘한(恨)스럽다’, 혹은 ‘한(恨)이나 풀자’ 등의 정서를 넘어선 심적 상태, 비유, 행위, 인지 등의 언어적 표현으로 사용되며, 둘째, 한국어 한(恨)은 정확한 외국어 번역이 어렵고, 셋째, 한(恨)은 일반적으로 정서 단어로 규정하지만 다른 언어에서 일치하는 정서 단어가 없다. 예를 들어 한(恨)이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혐오, 우울 등의 정서와 비교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넷째, 한(恨)은 정한, 원한, 회한, 여한, 자한, 통한, 망한, 해한 등 다양한 하위 파생어가 있다. 정이나 원과의 관계, 과거나 미래의 한(恨) 의미, 개인의 한, 심적 고

통이나 한(恨)에 대한 해결이나 동기를 의미하는 표현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한(恨)은 개인의 복합적 정서를 함의하며 사건의 발생에서 해결까지의 심적 변화를 추상화한 복합적인 표상의 개념이기도 하다. 이는 서양의 개인적 관점의 어휘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개념이다(Choi, 2011). 즉 한국적 한(恨)은 한국의 공간에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정교화된 언어적 개념체계인 것이다(Lee & Lee, 1998).

나아가 Plotkin(1996)은 인간의 문화와 자연 언어가 고정되고 안정되고 폐쇄되기 보다는 전환되고, 공유되고, 상징화 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상위의 추상적 표상이라고 하였으며, D'Andrade(1981)는 문화를 프로그램으로 비유하여, 문화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유도된 발견(guided discovery)을 통해서 학습되기보다는 애매하고 암묵적인 지시나 규칙 체계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명시적이고 형식적인 상징체계를 지니고 구체적인 지시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적 프로그램은 명시적 형식보다는 영성하고 암묵적인 내용의 조작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두 프로그램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컴퓨터의 인공 언어는 한정된 의미로 프로그램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문법을 지니고 있지만, 자연 언어의 문법에 비해서 진화나 생존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예; D'Andrade, 2002). 즉 인간 언어가 지니는 역동성과 진화적 생존력 또한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임을 주장하였지만, 과연 자연 언어가 문화에 역동적으로 작용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밝힐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Lee & Choi(2003)의 한(恨) 연구는 1994년대 대학생을 참가자로 사용하였다. 그러면 최근 2019년대 대학생의 표상은 어떠할까 하는 의

문이 제기된다. 문화적 개념의 세대적 변화는 계속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유된 지식의 표상이며, 문화적 표상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보다는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DiMaggio & Markus, 2010; Greenfield, 2017; Nilson, 2014; Yang & Ho, 1988).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디지털 문화, 모바일 문화, 4차 산업혁명의 발생 가능성 등 급격한 사회적 맥락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나 홀로 문화가 급증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한(恨) 같은 타인의 심정, 우리나라 민족 같은 관계적이며 추상적인 수준의 언어 표상과 문화인의 인지적 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문화적 개념으로 알려진 'yuanfen(緣分)'의 의미도 세대에 따라 의미가 변화한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예; Yang & Ho, 1988; Heger, 2015). Heger(2015)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중국인에게 대인간의 인연은 불교의 운명적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의 중국인 대학생들은 그 인연의 발생이 점차 현실적 개인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행이나 이민의 자유화와 더불어 인터넷과 SNS의 일상적 생활화는 국가라는 물리적 공간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에 문화를 특정 범주로 구분하기에는 세계의 문화적 교류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되고 있다는 점이다(Hong et al., 2000; Oyserman, 2011; Oyserman & Yan, 2019). 과연 한국의 문화도 고립된 고유한 문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다문화적 변화의 강력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겠다.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시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더불어 문화를 연결하여야

한다는 사회학적 이론이 제안되었다. Karl Mannheim (1952)은 세대(generation) 이론을 제안하여 시간의 변화가 단순히 역사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생물학적 리듬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동일한 세대는 유사한 인지체계를 구성하며, 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연속적으로 구성하며 기존의 세대는 자연스럽게 대체되어 가는 연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이 이론은 세대적 인지는 청소년기인 10-20대 형성되며 이 연령대에 형성된 세대적 인지는 일생동안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Rathbone et al., 2008), 한 세대는 대략 20-30년 단위로 구성된다고 하였다(Nilsen & Brannen, 2014). 세대는 유사한 출생시점을 전제로 하며 그래서 코호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예; Ryder, 1965). 그러나 세대는 단순한 연령의 제한도 아니며 생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세대의 개념인 세대 공간과 세대 단위의 개념도 제안되었다(Corsten, 1999). 이러한 논의는 문화의 역동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문화변인의 연구는 문화 간의 비교 문화나 한 문화권의 연령에 따른 횡단적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예; Greenfield, 2000). 동시대 문화의 비교 문화 연구는 세대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가외 요인이 작용하며 단일 문화의 횡단적 연구는 세대의 차이만을 고유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恨) 연구는 비교 문화적 연구가 되기 어려우며 한 문화 내에서 연령의 차이를 통한 횡단 연구도 세대 자체가 지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없다. 한 세대의 문화적 공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의 의미인 세대의 단위가 개념적으로나마 한정될 수 있다면, 두 시점의 세대

적 공통성을 지닌 문화적 참가자를 비교하면 순수한 시간 변인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예; Corsten, 1999; Pilcher, 1994; Ryder, 1965).

이 연구는 Lee & Choi(2003)의 연구를 세대변인을 추가하여 반복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2개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 1은 Lee & Choi(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현재의 참가자에게 실시하여 동일한 질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실험 1의 자유생성과제와 평정과제에서 수집된 자료는 선행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두 연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994년도 세대(Lee & Choi, 2003)와 2019년도 세대(이 연구의 실험 1)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조작은 각 세대에서 생성되고 평정된 자유생성과제의 빈도와 평정과제의 평정치를 사용하였다. 실험 2는 실험 1의 자료와 점화자극을 구성하여 실험재료를 만들었다. 자료 세트는 빈도 자료 세트와 평정치 자료 세트를 별도로 구성하여 참가자 간 변인으로 조작되었다. 특히 다원적 접근의 주요 특징은 실시간적으로 한(恨) 마음의 과정을 접근하고 암묵적 수준의 문화적 특성을 함께 규명할 수 있는 양적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데 있다(Lee & Kim, 1998). 이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른 점은 빈도 자료에 기반한 실험재료가 추가된 점과 점화과제도 어휘판단과제 대신에 명명과제를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빈도와 평정의 두 과제의 차이점에 대한 조작은 세대변인을 상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였고, 과제의 변화는 명명과제가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과제의 민감도와 자료의 변산도에 잇점이 있었기 때문이다(Balota & Lorch, 1986; De Houwer et al., 2001; Herring, et al., 2013; Lee, 2017; Lee et al., 2018).

선행연구에 기반한 이 연구의 세대변인의 설정과 실험변인과 절차의 체계적인 조작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게 한다. 첫째, 세대변인의 효과이다. 1990년대와 2010년대의 한국 문화적 표상이 유사하다면 한(恨) 점화로 인한 한(恨) 관련 단어의 빈도, 평정치, 및 명명시간의 양상이 세대변인에 따라 유사하게 관찰될 것이다. 즉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관찰되어야 한다. 반면에 두 세대의 시간적 변화가 한(恨) 표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3 과제의 양상이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해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세대의 변화가 20-30년이 지속된다는 사회학적 이론(Mannheim, 1952), 문명의 발달은 개인중심의 경향성을 강화시킨다는 연구(Greenfield, 2017; Santos et al., 2017), 특히 한국 사회의 개인화 혹은 가족 축소 경향, 이민과 여행으로 인한 다문화와 문화적응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 구체적 변화가 예측되기는 어렵지만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는 자연스레 예상된다. 더욱이 명명과제의 적용은 한(恨) 언어의 외현적 수준과 암묵적 수준의 표상 차이를 보다 민감하게 관찰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게 된다. 만약 문화적 지식이 외현적 수준보다 암묵적 수준에 민감하면 세대나 문화변인의 민감성에 더하여 과제 간의 해리적 차이도 관찰될 것이다. 세대변인은 3개의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1994년도 참가자의 높은 빈도와 높은 평정치 단어, 2019년도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와 높은 평정치 단어, 그리고 두 연도 참가자의 빈도와 평정치가 유사한 단어이다. 각 세대에 차별적인 문화적 변화가 문화적 표상에 작용했다면 2019년도 참가자는 1994년도 우세 빈도와 평정치 단어보다 2019년도 우세 빈도와 평정치 단어가 반응시간이 빠를 것이라는 예

측이 가능하다.

둘째, 실험 2는 세대변인에 더하여 문화변인과 과제변인을 보다 정교화 하였다. 부연하면 문화변인도 서편제 장면, 한(恨)단어, 인생을 아름다워 장면의 3 수준을 선택하였다. 선행연구는 서편제 비디오 점화조건과 비제시 통제조건만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두 실험 조건에 한(恨) 언어 자극 조건과 서양 영화 조건을 추가하였다. 만약 한(恨)이 포함된 어휘도 한국적 문화 의미를 포함한다면 영화 서편제의 장면과 함께 한국적 문화의 의미를 점화하는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예; Oyserman, 2011; Oyserman & Yan, 2019). 언어는 장면에 비해서 보다 자극의 구체성이 높다. 문화인이 한(恨) 단어에 대한 다양한 언어적 의미와 그 의미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면 이들 단어의 점화 또한 한(恨) 관련 단어의 활성화 과정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양 영화이다(예; 인생은 아름다워, Benigni, 1997). 이 단서는 한국 문화의 통제조건이다. 이 영화의 점화효과는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만약 한(恨) 의미가 문화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미약하다면, 문화 언어로의 의미가 희석되었음을 시사할 것이다. 즉 다양한 문화자극의 경험이 문화점화자극의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문화적 점화자극의 효과가 미약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그리고 과제유형은 자유생성과제 기반 단어와 평정과제 기반 단어 2 수준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게 하였다. 선행연구는 평정과제 기반 단어만을 구성하여 어휘판단과제에 사용하였다. 만약 한(恨) 어휘의 자유생성과제와 평정과제의 결과가 일치하였다면 두 과제에서 얻어진 단어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지만, 이 연구의

실험 1의 결과는 두 과제의 한(恨) 단어 빈도와 평정치의 상관성이 낮았음을 보였다. 과제의 일치성이 가정되면 문화 단어의 생성 빈도가 높으면 그 단어에 대한 평정치도 높아야 하며, 이들 과제의 결과가 반응시간에도 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생성 빈도와 평정치가 높은 단어가 낮은 단어에 비해서 반응시간도 빠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과제의 낮은 상관성은 두 과제 각각과 반응시간의 양상에도 차별적인 영향력도 예측된다. 다원적 접근의 맥락에서 보면 생성과제와 평정과제 및 명명과제의 체계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추가하여 한(恨) 어휘가 단순히 정서 단어의 수준을 넘어서 한(恨) 명제 혹은 한(恨) 담화의 표상 체계를 함의하는 추상적 문화 개념이라면 한(恨) 어휘의 담화적 범주 구분은 한(恨) 표상의 중요한 분석 차원일 것이다. 이 연구는 한(恨) 단어의 범주를 선행연구처럼 생성과제와 평정과제에서 얻어진 단어를 4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Lee & Choi(2003)는 문화점화가 단어의 반응시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통계적으로 경향성만 확보하였다. 이 연구의 예측되는 결과는 선행연구처럼 모든 범주의 점화효과가 관찰됨을 예측할 수 있지만 범주 간의 점화 차이를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단지 선행연구의 어휘판단과제보다 명명과제가 정서나 점화변인에 작용하는 민감도가 높고, 명명과제의 SOA(stimulus onset asynchrony)가 문화변인의 암묵적인 특성에 보다 민감하다면 범주의 차이도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예; D'Andrade, 1981). 즉 담화의 상황모델이나 자전적 기억의 이론에서 가정한 구성요소에서 반응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문화적 표상에 대한 보다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실험 1: 생성과제와 평정과제

실험 1은 세대에 따른 한(恨) 어휘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생성과제와 평정과제를 적용하였고, 두 과제에서 수집된 한(恨) 어휘는 실험 2의 실험재료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실험 1은 선행연구인 Lee & Choi(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2019년 현재 대학생에게 배포하여 한(恨) 어휘의 표상 내용을 관찰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이 실험의 주요 관심인 질문 4는 한(恨)의 연상단어를 생성하게 하는 질문이었다(자유생성과제, free generation task). 생성과제에서 수집된 단어는 선행연구의 절차에 따라서 생성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참가자로부터 한(恨) 관련성 평정치를 수집하였다(평정과제, rating task).

두 과제는 한(恨) 문화의 기억 지식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생성과제는 한(恨) 단서에 의한 자율적 인출과정이 작용되며, 평정과제는 생성단어에 대한 한(恨)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작용된다. 그러므로 두 과제는 기억의 단서회상(cued recall)과제와 재인(recognition)과제의 인출과정에 비교될 수 있다. 회상과제는 기억의 하향적 과정이 우세하며 재인과제는 상향적 과정이 우세하다고 알려졌다(McCabe et al., 2011). 만약 문화 지식이 기억에 고정된 도식으로 표상되었다면 두 과제의 차이는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 지식이 상황이나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문화 지식이 정교화되지 않았다면 두 과제에서 문화 단어에 대한 반응이 다를 가능성도 예측된다. 즉 세대의 차이가 문화적 개념에 변화를 일으켰다면 기억 과제에 따라 문화 개념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관찰될 가능성도 있다.

방 법

참가자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한 대학생 142명이 설문지 연구에 참여하였고, 한(恨) 연상단어의 평정은 65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다. 실험 1은 모두 207명의 참가자로부터 한(恨) 개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실험은 계명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o. 40525-201909-HR-050-03).

실험재료

한(恨) 설문지는 모두 10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의 내용은 Lee & Choi (2003)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한(恨) 설문지는 모두 10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참조). 질문의 내용은 개인의 한(恨) 경험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 (1), 한(恨)의 문화적 고유성 판단과 특성 (2), 일반적 개념 수준의 한(恨) (1), 한(恨)의 연상단어 (1), 한(恨)의 주관적 정의 (1), 한(恨) 발생 시의 마음 상태의 내성 (1), 한(恨) 발생시의 행동양식(2) 등이 포함되었다.

실험절차

실험은 두 단계로 순차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자유생성과제를 실시하고, 이 과제에서 얻어진 질적 단어를 분류하여 빈도 자료를 구성하였고, 다음 단계는 평정과제이며 생성과제에서 수집된 단어의 한 관련 평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유생성과제는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설문지를 제시하고, 설문지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읽게 하였다. 그런 다음, 질문 문항을 읽으면서 기억에서 인출되는 심적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게 하였다. 기억 내용의 표현은 가능한 기억에서 인출되는 순서에 따라서 기술하게 하였다. 설문지 문항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독립된 평정과제는 자유생성과제의 연상단어 자료에서 생성 빈도가 2 이상인 단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과제의 참가자는 자유생성과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생이었다. 한(恨) 연상단어를 무선적으로 배열한 반응 응답지를 구성하고, 참가자에게 개인별로 제시한 다음 7점 척도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단어가 한(恨)과 매우 관련이 있으면 1점, 가장 관련이 없으면 7점에 표시하게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결과 및 논의

참가자의 한(恨) 경험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은 69명이 경험했다고 반응하였으며 73명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반응하였다. 한(恨)이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개념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52명(38%)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85명(62%)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실험자가 참가자에게 한 연상단어를 순서로 생성하게 하였을 때 첫 연상단어는 142명의 참가자에게서 64 종류의 단어가 생성되었고 생성 수를 제한하지 않았던 조건을 포함하면 모두 627개의 단어가 생성되었고, 211개의 단어 유형이 생성되었으며, 개인당 평균은 4.41개이었다. 1994년은 111명의 참가자에게서 656개의 단어가 생성되었고, 178개

의 단어 유형이 생성되었으며, 개인 당 평균은 5.90개이었다. 2019년도와 1994년도의 단어 수, 유형, 평균 개수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두 연도의 생성단어는 모두 빈도가 2이상인 단어만 수집하였다. 1994년도의 단어 수는 79개였으며 2019년도의 단어 수는 104개이었다. 두 연도의 공통 단어는 74개이었다. 공통 생성단어의 생성빈도의 평균은 1994년도가 6.08개(SD=6.78), 2019년도가 5.85개(SD=8.71)이었고,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평정과제는 104개 단어를 대상으로 65명의 참가자에게 실시하였다. 평정치의 7점 척도 평정의 평균은 3.57(SD=.42)이었다. 1994년도의 평정치 평균은 평균 3.65(SD=.84)이었고, 두 연도의 평균 차이는 없었다. 단지 표준편차는 1994년도가 2019년도보다 2배 정도 컸다. 실험 1의 주요 관심은 한(恨)의 기억 내용을 관찰하고, 실험 2에 사용될 실험재료를 구성하는데 있었다. 즉 한(恨) 개념에 의해서 생성되는 연상단어

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인 세대변인의 효과를 선행연구인 Lee & Choi(2003)의 연구 결과에 비교하는 것이었다. 두 자료의 비교는 1994년도 대학생과 2019년도 대학생의 한(恨) 어휘의 개념적 표상의 차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표 1은 자유생성과제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19년도 대학생의 한(恨) 단서의 연상단어 빈도는 '슬픔'이 가장 많았고, '억울함', '분노', '귀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994년도 대학생은 '여인', '눈물', '슬픔', '민족' 등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두 세대의 한(恨) 단어의 연상단어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94년도는 '여인', '민족', '일제' 등의 대상 어휘의 생성빈도가 '눈물', '슬픔', '고통', '복수' 등의 정서 어휘의 생성빈도가 비슷하였지만 2019년도는 정서 어휘가 대상 어휘보다 높은 빈도의 단어가 많았다. 특히 정서나 인지 단어인 '억울함', '분노', '후회'의 빈도가 높았

표 1. 세대적 연도별 자유생성과제에서 관찰된 생성단어의 유형과 각 단어의 생성빈도

1994년도: 여인 (38) 눈물 (28) 슬픔 (24) 민족(22) 고통(21) 일제(17) 복수(14) 분노(13) 죽음 (13) 인내(12) 흰옷(12) 어머니(10) 가난(10) 억압(10)
2019년도: 슬픔 (50) 억울함(39) 분노(27) 귀신(22) 후회(22) 여인 (18) 눈물 (17) 원한(15) 정서(15) 원망(11) 죽음 (9) 한국인(9) 맺힘(9) 안타까움(9)

* 볼드체 단어는 1994년도와 2019년도의 생성빈도가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세대적 연도별 한(恨) 연상단어의 유형과 평정치 평균 점수

1994년도: 맺힘 (1.7) 정신대 (2.0) 이산가족(2.2) 서러움 (2.2) 원한 (2.3) 눈물 (2.5) 그리움 (2.5) 가난 (2.5) 슬픔(2.7) 억울함(2.7) 한숨(2.7) 가슴앓이(2.7) 일제 (2.8) 이별 (2.8)
2019년도: 이산가족(2.7) 일제(2.7) 맺힘(2.9) 민족 (3.0) 원한(3.0) 서러움(3.0) 가슴앓이(3.0) 그리움(3.1) 정서(3.1) 정신대 (3.1) 눈물(3.1) 가난 (3.1) 억울함(3.1) 이별(3.1)

* 볼드체 단어는 1994년도와 2019년도의 평정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고, 대상 단어는 ‘귀산’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전자는 대상, 정서, 행위의 단어가 고루 생성되었지만 후자는 주로 정서 단어의 생성 빈도가 높고 단어 유형도 많았다. 대상의 경우는 ‘귀산’ 단어가 많았는데 이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문화적 표상이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2는 생성단어의 평정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생성된 한(恨) 관련 단어에 대한 한(恨) 관련성 평정치의 평균이다. 관련성 평정치는 1994년 자료가 2019년 자료에 비해서 단어의 유형은 비슷하지만, 평정치의 편차와 순서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1994년도는 평정치가 ‘맺힘’은 1.7, ‘정신대(위안부)’는 2.0 등이었지만 2019년도는 ‘이산가족’이 2.7, ‘일제’ 2.7, ‘맺힘’은 2.9에 불과하였다. 평정과정제는 생성빈도에 비해서 평정치 강도가 2019년이 1994년보다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평정과정제의 연도별 평균 평정치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표준편차의 차이는 있었다. 평정 척도가 7점인 점을 고려하면 3.5는 척도의 중간 값이다. 두 연도의 평정치 표준편차를 고려하면 1994년도는 2019년도에 비해서 평정치가 높은 단어와 낮은 단어가 평균을 중심으로 양극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1994년도에 비해서 2019년

도 참가자는 한(恨) 연상단어의 평정치의 변산이 1994년도에 비해서 평균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평정과정제의 평정치 강도와 생성과정제의 생성 빈도의 양에 포함되는 한(恨) 단어의 유형이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두 연구의 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각 변인에 대한 1994년 자료와 2019년 자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두 연도의 빈도 상관은 .394이었으며 평정치 상관은 .784이었다. 빈도 간 상관보다 평정치 간 상관이 높았다. 한국어 사용 빈도는 생성 빈도나 평정치와의 상관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1994년도 빈도는 한국어 사용 빈도와 통계적인 차이는 보였다.

표 4는 한(恨)의 연상단어 이외의 질문에서 생성된 내용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恨)이 문화적 고유성이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 연도 모두 ‘침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지만, 이후의 내용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994년은 ‘민족정서’나 ‘인내심’이 높은 빈도를 보였지만 2019년은 ‘감정억압’과 ‘집단주의’의 빈도가 높았다. 한(恨)의 주관적 정의에서도 1994년은 한(恨)에 의한 마음의 상태인 ‘웅어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지만 2019년은 ‘감정’과 ‘억울’의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恨)의 일반적 원인도 ‘좌

표 3. 연도별 생성빈도, 평정치 자료 및 한국어 사용 빈도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평균	표준오차	1	2	3	4	5
1. 1994년도 생성빈도	3.69	4.98	1				
2. 2019년도 생성빈도	2.97	5.59	.394**	1			
3. 1994년도 평정치	3.59	.81	-.278*	-.252	1		
4. 2019년도 평정치	3.56	.41	-.175	-.079	.784**	1	
5. 한국어 사용 빈도	323.88	1418.40	.185*	-.039	-.118	-.047	1

* $p < .05$. ** $p < .01$. 한국어 사용 빈도는 Kim(2005) 참고.

표 4. 연도별 恨 설문지 질문 유형에 따른 반응의 빈도 비교

질 문	생성 내용
문화 고유성:	1994년도: 침략(31), 민족정서(26), 인내심(12) 2019년도: 침략(24), 감정억압(9), 집단주의(7)
주관적 정의:	1994년도: 가슴 응어리(25), 어쩔 수 없는 감정 내재화(21), 비극적 정서(14) 2019년도: 좌절 감정(31), 복합적 부정정서(16), 억울(12), 통제 불능 감정(10)
일반적 원인:	1994년도: 좌절(21), 억울(16), 죽음(9), 환경/경제 어려움(8) 2019년도: 좌절(31), 억울(25), 환경제약(13), 상실(10), 대인관계(10)
개인적 원인:	1994년도: 좌절(26), 환경제약(14), 차별대우 (12), 능력한계(10) 2019년도: 좌절(19), 억울(11), 대인관계(10), 환경제약(9), 차별대우(6)
마음의 상태:	1994년도: 허무(19), 고통(17), 답답함(13), 분노(11), 극복(10) 2019년도: 슬픔(46), 분노(44), 억울(37), 답답함(32), 후회(19)
대처적 행위:	1994년도: 위로(31), 공감(19), 해결못함(19), 초월(17), 풀기(14), 강경대처(14) 2019년도: 공감(34), 도움(33), 위로(28), 방안모색(11), 조언(11), 원인질문(7)

* 참가자: 1994년도 N=111, 2019년도 N=142, ()안은 빈도 수.

질과 '억울'의 빈도가 두 연도에서 일치하였고, 개인적 원인에서는 두 연도의 차이가 있었다. 1994년도는 恨(恨)의 개인적 원인과 일반적 원인이 유사하지만 2019년도는 '억울'과 '대인관계'의 생성 빈도가 높았다. 恨(恨)의 마음 상태에서도 1994년도는 인지적 상태의 빈도가 높았지만 2019년도는 감정 특히 정서 상태의 빈도가 높았다. 恨(恨)의 대처행위에서도 '위로'와 '공감'은 두 연도 모두 빈도가 높았고, 1994년도는 '해결 못 함'과 '초월'이 그 뒤를 이었지만, 2019년도는 '도움'이나 '문제해결 방안'과 '조언'의 빈도가 그 뒤를 이었다.

종합하면 두 과제에서 얻어진 자료는 1994년도의 대학생과 2019년도의 대학생이 恨(恨)에 대한 인지적 표상은 유사한 표상도 있지만 25년의 시간이 恨(恨)의 개념적 표상에 차이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관찰되었다. 첫째, 恨(恨)

연상단어의 빈도에서 1994년도 대학생은 대상 단어와 정서 단어가 대등한 빈도를 보였지만, 2019년도 대학생은 대상 단어보다 정서 단어의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恨(恨) 단어의 관련성 평정치는 두 세대 연도 간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없지만 평정치의 강도와 순서는 차이가 있었다. 셋째, 한국어 사용 빈도와 생성 빈도의 상관은 1994년도 단어가 2019년도 단어보다는 일상에서 恨(恨) 관련 어휘를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엿보였다. 전반적으로 두 년도의 반응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유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험 2: 점화명명과제

실험 1은 恨(恨) 관련 단어를 생성 빈도의

범주별 분류와 생성단어의 평정과제를 실시하였고, 실험 2의 실험 재료를 구성하는 기반 실험이었다. 실험 2는 한(恨) 연상단어를 빈도와 평정치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하여 실험 재료를 각각 구성하고, 한(恨) 문화조건을 점화하여 목표조건에 대한 점화효과를 명명과제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추가하여 한(恨) 목표조건에 대한 실험 재료를 담화 범주로 분류하여 명명시간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Lee & Choi(2003)는 한(恨) 단어를 6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나 이 실험에서는 대상(구체와 추상)단어, 사건단어, 정서단어, 인지(행위와 상태)단어의 4개 범주로 축소하여 명명시간을 비교하였다(Zwaan & Radvansky, 1998). 실험 2에서 조작된 독립변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恨) 점화조건은 3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선행연구는 한(恨) 점화조건과 통제조건을 비교하였다. 점화조건이 통제조건에 비해서 어휘판단시간이 빠름을 확인하였다. 실험 2는 한국 문화를 점화하는 자극을 영화 장면과 한(恨) 단어 점화로 세분하고, 서양 문화조건을 서양 영화로 점화하였다. 즉 각각 영화 서편제, 한(恨) 단어,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이었다. 목표조건은 세대변인을 생성 빈도와 평정치에 따라 1994년도 우세조건, 2019년도 우세조건, 두 연도 동일조건으로 세분하였다.

두 연구는 과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생성과제와 평정과제 간의 상관성이 낮았다. 선행연구는 평정과제의 자료에 기반하여 실험 재료를 범주화하였지만, 실험 2는 두 과제가 지니는 기억과 지식 인출과정이 차이를 가정하였다. 생성과제는 단서회상의 과제와 유사하며 평정과제는재인과제와 유사하다. 즉 전자는 한(恨) 단서를 사용하여 연상 내용을 기억 인출하게 하는 과제였다. 후자는 기

억 인출된 단어를 한(恨) 범주에 관계되는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였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서 자동적인 인출과 의도적인 인출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는 의도적인 판단 과정이 강조되는 과제이다(McCabe et al., 2011). 두 과제의 차이가 한(恨) 연상 단어의 유형이 다르고 명명과제에 작용하는 영향력이 다르다면 과제 간에 상호작용적 효과가 관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실험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선행연구인 Lee & Choi(2003)는 점화자극을 영화 서편제 장면을 비디오로 제시하고, 한(恨) 관련 단어와 통제 단어(사람 이름)에 대한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실시하였다. 즉 점화자극과 판단과제 사이의 시간이 분 단위를 넘었다. 선행연구는 실험 조건과 수행 과제에서 문화적 표상의 실시간적 접근성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실험 2는 점화자극의 제시를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하고 목표 단어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측정하여 장면 상황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측정하였고, 어휘판단과제는 단어의 의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이기에 과제가 지니는 변인에 대한 판단 전략과 민감성 문제가 제기되었다(예; Balota & Lorch, 1986; De Houwer et al., 2001; Glaser & Banaji, 1999; Herring et al., 2013). 실험 2는 잠재적 변인의 점화에도 민감한 명명과제(naming task or pronunciation task)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실험 변인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며 반응의 변인이 적고 참가자가 쉽게 반응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예; Lee, 2017; Lee et al., 2018).

선행연구인 Lee & Choi(2003)는 어휘판단과제를 적용한 점화 실험에서 한(恨) 관련 단어의 반응시간이 통제 단어인 사람 이름의 반응시간보다 빨랐으며, 서편제 점화조건이 통제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통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어의 범주 조건의 비교에서는 점화의 크기 차이를 관찰하지 못했다. 단지 반응의 경향성만 확인하였다. 점화자극의 조건을 세분화하고 실험재료의 구분도 과제의 유형에 따라 세분하였다. 특히 명명과제가 어휘판단과제보다 어휘의 문화적 의미에 민감성이 높다면, 선행연구의 어휘판단과제의 문화변인의 경향적인 결과가 보다 의미있는 차이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된다.

실험 2의 예상되는 결과는 만약 한(恨) 단어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문화자극의 점화가 한(恨) 연상단어에 촉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대 조작 단어도 2019년도 우세조건이 1994년도 우세조건보다 명명시간에 촉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명명과제와 SOA 조작이 문화적 의미 지식의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표상과 과정을 관찰하기에 민감하다면(예; Lee, 2017; Lee et al., 2018), 생성과제와 평정과제의 빈도나 평정치자료와 명명시간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이 적용된다면 문화적 점화조건의 주효과와 세대목표의 주효과가 예측되고 문화점화가 세대목표와 차별적이라면 두 변인의 상호작용도 예측된다. 특히 단어를 분류한 과제의 유형이 기억의 인출과정에 차별적이라면 두 변인과 과제유형의 상호작용도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담화 범주의 유형에 대한 예측이다. 선행연구인 Lee & Choi(2003)는 서편제 점화와 비점화 통제조건을 비교하였고, 단어 범주의 차이를 관찰하지는 못하였다. 실험 2는 실험절차와 변인의 조작이 암묵적인 과정에 보다 민감하다면 명명과제에서 담화 범주의 조작 효과가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문화점화가 세대목표의 명명

시간에 작용하는 효과가 과연 어떠한가가 주요 관심이다.

방 법

참가자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64명이 모집 공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소정의 참가비를 지원받았다. 참가자의 성명과 성별은 조사되지 않았으며 연령은 평균 23세이었으며 표준편차는 4.47세였다. 그리고 이 실험은 계명대학교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o. 40525-201909-HR-050-03).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모두 문화유형의 변인으로 한국 영화(서편제), 한(恨) 단어, 서양 영화(인생은 아름다워)를 3 수준으로 조작하였으며, 둘째, 목표조건은 세대변인으로 1994년도 우세조건, 2019년도 우세조건, 두 연도 동일조건인 3 수준으로 조작하였고, 셋째, 실험재료를 범주화한 과제 유형인 빈도와 평정치를 2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점화조건과 목표조건은 참가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고, 과제조건은 참가자간 변인으로 조작하였다. 실험 2는 (3*3)*2 혼합요인설계이다. 추가하여 넷째, 실험재료 단어의 범주 변인은 대상단어, 사건단어, 정서단어, 인지단어의 4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이 변인은 참가자내 변인으로 조작되었고, 점화조건과 범주유형을 조합하여 (3*4) 참가자내요인설계를 적용하였다. 이 조작은 실험재료에서 기

술되는 평정치 기반 재료에만 적용되었다. 빈도 기반 재료는 과제 특성상 변인 수준별로 조작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험재료

한(恨) 점화자극은 영화 서편제, 한(恨) 단어, 영화 인생은 아름다위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서편제(1993년 개봉)는 한국의 한(恨) 문화를 상징하는 영화이며(Im, 1993), 인생은 아름다위(1997년 개봉)는 서양의 복합 정서를 상징하는 영화이다(Benigni, 1997). 한(恨) 단어는 한(恨)의 세부 유형을 표현하는 의미적 연관 단어이다. 영화의 선정 기준은 두 영화가 한국과 서양의 문화를 대표하며, 영화의 구성도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영화 모두 주인공은 세 가족과 주변 인물로 구성되고, 영화의 배경도 한국의 일제강점기와 이차세계 대전의 나치 수용소 배경이며, 주인공의 행위는 강제적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유사점이 있으며 모두 복합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으로 적합하였다. 단지 서편제는 동양의 한국적 상황을 보여주며 인생은 아름다위는 서양의 유럽적 상황을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다. 실험재료는 두 영화에서 각각 12개 장면을 선정하여 구성되었고, 한(恨) 단어에서 9개 단어를 선정하였다. 모든 자극은 640x355픽셀이며 8비트 수준의 BMP 파일로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화 서편제의 장면은 선행연구의 비디오에 사용된 장면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Lee & Choi, 2003). 예를 들어, '유봉과 친구들과의 대화 장면', '낙산거사와 동호의 대화 장면', '유봉과 송화의 대화 장면', 및 '송화와 천씨의 대화 장면', '송화와 동호의 재회 장면' 등이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위'도 가능한 인물

과 배경을 서편제에 유사하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재료에 사용된 영화 장면은 부록 2에 제시되었다.

목표자극은 한(恨) 단어의 생성 빈도와 평정치에 근거하여 두 유형의 실험재료를 구성하였다. 목표자극은 세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인 Lee & Choi (2003)의 연구는 단어의 평정치에 기반하여 단어 범주의 점화를 관찰하였지만 이 연구는 세대변인이 주요 독립변인으로 선정되었다. 1994년도의 참가자와 2019년도의 참가자를 직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년도의 참가자에게 동일한 설문지를 적용한 결과를 사용하여 세대를 구분하였다. 세대조건은 1994/2019 두 년도의 설문지 반응에 기반하였고, 설문지 반응은 두 과제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두 과제의 측정치에 기반하여 실험재료를 각각 구성하였다. 첫째는 자유 생성 빈도에 기반한 분류 방법이 적용된 재료이며, 둘째는 평정 과제에 기반한 분류 방법이 적용된 재료이다. 각 재료는 두 연도의 단어를 각각 빈도와 평정치 순으로 나열하고 각 연도의 빈도와 평정치가 높은 순으로 12개 단어씩을 선정하였으며, 두 연도의 빈도와 평정치가 유사한 단어 12개도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어 재료는 각각 3 조건이었으며 중복되는 단어는 통제하였다. 실험재료는 빈도 기반 단어 36개와 평정치 기반 단어 36개로 구성되었다. 세대조건은 36개 단어는 문화조건 3개에 반복 할당되었다. 빈도나 평정치 기반 재료에 무선할당된 한 참가자는 문화점화와 세대목표조건으로 구성된 전체 108개의 점화-목표조건에 대한 명명반응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재료의 영화 장면은 목표 단어에 3번이 반복되며 한(恨) 단어는 4번이 반복되도록 조작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은 점화와 목표자극의 제시 순서를 무선적으로 제시하도록 구성되었다. 빈도 기반 재료에 비해서 평정치 기반 재료는 빈도와 다른 절차인 평정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평정치 단어는 실험 1에서 생성된 단어 중에서 빈도가 2 이상인 104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한(恨) 관련 평정치를 65명의 참가자로부터 수집하였다. 그 다음은 1994년도 자료와 2019년도 자료의 평정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차이가 유의한 단어를 빈도 재료와 통계적 차이와 유의성에 기반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평정치 기반 재료는 선행연구의 범주 간 분석을 추가하기 위해서 각 세대변인에 포함되는 12개의 단어를 가능한 대상, 사건, 정서, 인지의 4범주에 적합한 단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빈도 기반 재료와 평정치 기반 재료는 각각 독립적인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간 변인으로 조작되었다.

두 유형의 분류 방법에 기반하여 구성된 실험재료의 기술적 통계치가 표 5에 제시되었다. 자유생성과제에서 수집된 빈도 자료의 세대 분류의 분석은 수집 연도의 주효과는 없었고, 수집 연도의 주효과[$F(2,33)=4.33, p=.021$]와 세

대와 수집 연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33)=44.18, p=.000$]. 평정과제에서 수집된 평정치 자료의 세대 분류의 분석 역시 수집 연도의 주효과[$F(2,33)=30.13, p=.000$]와 세대와 수집 연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33)=83.78, p=.000$]. 두 과제에서 수집된 실험재료의 통계적 분석 결과는 세대 집단을 구분해 주는 빈도와 평정치 조작이 잘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였다. 추가로 1994년도의 자료에서 수집된 어휘판단시간을 세대변인의 수준에 비교하였을 때 세대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실험절차

실험은 컴퓨터에서 개인별로 실시되었다. 먼저 컴퓨터의 화면에는 실험의 지시문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었고, 지시문 이해가 끝난 다음, 화면에 'XXX' 표시가 750ms 동안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점화자극으로 문화 단서가 제시되었다. 실험 조건에 따라서 서편제. 한(恨) 단어, 인생은 아름다워 자극이 무선적으로 200ms 제시된 다음 100ms의 지연시간 이후에

표 5. 세대유형과 과제유형에 따른 실험재료의 기술통계 및 어휘판단시간과 한국어 빈도의 평균

과제	세대	사례수	1994년	2019년	차이	LDT	한국어빈도
생성 빈도	1994년도 우세조건	12	19.41	7.00	12.41	575	110 (1.87)
	2019년도 우세조건	12	5.25	16.75	11.50	561	471 (2.24)
	두 연도 동일조건	12	4.08	5.83	1.75	572	326 (1.90)
평정치	1994년도 우세조건	12	2.60	3.36	.76	568	367 (2.11)
	2019년도 우세조건	12	4.56	3.82	.74	574	181 (1.90)
	두 연도 동일조건	12	3.21	3.33	.12	583	220 (1.87)

* LDT(lexical decision time): 단위 ms (Lee & Choi, 2003), 한국어 사용 빈도는 Kim(2005) 참조, ()안은 로 그 빈도

목표 자극인 한(恨) 연상 단어가 역시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실험은 점화 자극 SOA (stimulus onset asynchrony)를 300ms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목표 자극의 단어가 제시되면 참가자가 그 단어를 준비된 마이크에 빠르고 크게 발성하게 하였다. 이 과제를 명명 과제라고 한다(naming task). 종속 측정치는 목표 단어가 화면에 제시된 시점에서 참가자가 마이크에 단어를 발성한 시점까지의 잠재적 반응 시간이다. 이 시간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적으로 ms 단위로 기록된다. 한 참가자는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실험의 지시문을 이해하게 되며, 지시문을 이해한 참가자는 6번의 연습 시행을 거쳐 본 시행에 참가하게 되도록 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코비드-19로 인하여 새로운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하였고, 마이크도 매 실험마다 소독된 새 마이크 커버로 교체되었고, 실험자는 실험실에 참가자가 입실하면 체온을 측정하고 준비된 스왑으로 손소독도 실시하였다. 장면과 단어의 제시 및 반응 통제에는 Direct RT 2018 버전 소프트웨어로 진행되었고,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 2의 명명 과제에서 관찰된 반응 시간의 평균과 표준오차가 표 6에 제시되었다. 명명 시간의 오류와 반응 시간이 200ms 이하이거나 1000ms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 자료는 전체 반응 자료의 3%이었다.

실험 2의 변량 분석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문화 유형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124)=10.09, p=.000$]. 서편제 점화 조건 ($M=532ms, SE=12.7$)과 인생은 아름다워 점화 조건 ($M=534ms, SE=13.3$)이 한(恨) 단어 점화 조건 ($M=545ms, SE=13.3$)보다 각각 19ms, 18ms 빨랐으며 ($p=.000, p=.002$), 세대 유형의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124)=7.71, p=.001$]. 1994년도 우세 조건 ($M=531ms, SE=12.9$)과 두 연도 동일 조건 ($M=536ms, SE=13.1$)이 2019년도 우세 조건 ($M=544ms, SE=13.4$)보다 각각 13ms, 8ms 빨랐다 ($p=.001, p=.007$). 과제 유형의 주효과는 없었지만, 문화 유형과 과제 유형의 이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F(2,124)=6.72, p=.002$], 세대 유형과 과제유

표 6. 점화문화, 목표세대, 및 과제유형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N=64)

과제	세 대	서편제		한(恨) 단어		인생은 아름다워	
		M	SE	M	SE	M	SE
생성 빈도	1994년도 우세조건	514	18.8	522	18.5	512	18.5
	2019년도 우세조건	538	18.5	536	19.9	545	19.8
	두 연도 동일조건	538	18.1	544	19.4	545	19.0
평정치	1994년도 우세조건	542	18.8	562	18.5	535	18.5
	2019년도 우세조건	541	18.5	564	19.6	541	19.8
	두 연도 동일조건	518	18.1	543	19.4	525	19.0

* M = 평균, SE = 표준오차

형의 이원상호작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124)=21.00, p=.000$). 두 이원상호작용의 단순주효과 분석에서는, 생성과제에서 점화조건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평정과제에서 한(恨) 단어 점화조건($M=556\text{ms}, SE=19.2$)이 서편제 점화조건($M=534\text{ms}, SE=18.4$)과 인생은 아름다워 점화조건($M=534\text{ms}, SE=18.8$)보다 각각 22ms, 22ms 느렸다($p=.000, p=.000$).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평정과제의 한(恨) 단어 점화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반면에 세대유형과 과제유형의 상호작용은 생성과제에서 1994년도 우세조건($M=516\text{ms}, SE=18.0$)이 2019년도 우세조건($M=540\text{ms}, SE=18.3$)과 두 연도 동일조건($M=542\text{ms}, SE=18.6$)보다 각각 34ms, 35ms 빨랐지만($p=.000, p=.000$), 평정과제에서는 두 연도 동일조건($M=529\text{ms}, SE=18.4$)이 1994년도 우세조건($M=546\text{ms}, SE=18.4$)과 2019년도 우세조건($M=549\text{ms}, SE=19.6$)보다 각각 17ms, 19ms 빨랐다($p=.003, p=.000$). 세대유형과 과제유형의 상호작용은 과제유형에 따른 세대변인의 반응시간 패턴이 다르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생성과제에서는 1994년도 우세조건의 반응시간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 빨랐지만 평정과제에서는 두 연도 동일조건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 빨랐다. 과제가 문화점화와 세대목표에 각각 차별적이며 역동적으로 작용한다는 증거이다.

문화유형과 세대유형의 이원상호작용은 개체 내 효과 검증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개체 내 대비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62)=4.65, p=.035$].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었다. 세대유형의 1994년도 우세조건은 서편제 점화조건($M=528\text{ms}, SE=13.3$)과 인생은 아름다워 점화조건($M=$

523ms, $SE=13.1$)이 한(恨) 단어 점화조건($M=542\text{ms}, SE=13.0$)보다 각각 13ms, 18ms 빨랐으며 [$F(2,124)=8.91, p=.000$], 2019년도 우세조건은 과제유형과 이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F(2,124)=5.29, p=.006$], 그 상호작용은 평정과제에서 한(恨) 단어 점화조건이 다른 점화조건보다 느렸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두 연도 동일조건은 문화유형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124)=6.21, p=.003$]. 즉 서편제 점화조건($M=528\text{ms}, SE=12.8$)이 인생은 아름다워 점화조건($M=535\text{ms}, SE=13.5$)보다 7ms 차이가 있었고($p=.084$), 한(恨) 단어 점화조건($M=544\text{ms}, SE=13.7$)보다 15ms 빨랐다($p=.001$). 1994년도 우세조건과 2019년도 우세조건은 한(恨) 단어가 느렸고, 두 연도 동일조건은 서편제가 빠른 경향을 보였다.¹⁾

그림 1은 문화유형과 세대유형의 상호작용적 양상을 보여 준다. 과거 세대인 1994년도 대학생이나 현재 세대인 2019년도 대학생은 한국 문화의 점화와 서양 문화의 점화에 명명시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1994년과 2019년의 두 연도 빈도와 평정치가 일치하는 조건이 만족되면 한국 문화인 서편제의 영화 점화의 촉진적인 효과가 명명시간에 반영됨을 보인 것이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한(恨) 단어

1) 실험 2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문화점화가 3개인 조건과 4개인 조건이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각 실험은 32명의 참가자가 무선할당 되었다. 두 실험의 차이는 점화조건에서 통제조건의 제시였다. 실험 2의 결과는 문화점화 수준이 3개인 64명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문화점화를 4개 조건으로 실시한 실험은 144개의 점화-목표 조건의 반응이 분석되었고, 이 분석은 두 연도가 동일한 조건에서 서편제($M=532\text{ms}, SE=18.3$)가 인생은 아름다워($M=543\text{ms}, SE=19.0$)보다 명명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빨랐다($p=.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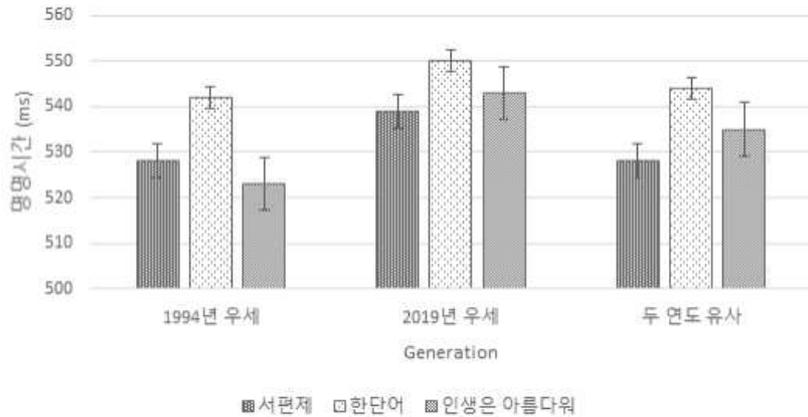


그림 1. 문화유형과 세대유형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N=64)

점화조건이 서편제와 인생은 아름다워의 점화 조건보다 느린 반응을 보였는데, 이 양상 또한 한국 문화의 점화가 세대에 따라 대비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실험재료의 단어를 범주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다. 즉 한(恨) 단어를 담화 문법에 대응하는 대상(구체와 추상), 원인, 정서, 인지(행위와 상태)인 문화유형과의 상호작용효과 여부를 분석하였다. 세대유형은 사용된 단어가 빈도와 평정치에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문화유형은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124)=6.40, p=.002$). 서편제 점화조건($M=530ms, SE=12.3$)과 인생은 아름다워 점화조건($M=523ms, SE=12.2$)이 한(恨) 단어 점화조건($M=541ms, SE=12.7$)보다 각각 11ms, 8ms 빨랐으며, 단어의 범주유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186)=11.85, p=.000$). 대상범주($M=523ms, SE=12.3$)는 원인범주($M=538ms, SE=12.8$), 정서범주($M=541ms, SE=12.7$), 인지범주($M=537ms, SE=12.6$)보다 각각 14ms, 17ms, 13ms 빨랐다. 비록 문화유형과

범주유형의 이원상호작용은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문화유형별로 범주유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서편제 점화조건은 다른 점화조건에 비해서 대상범주의 반응이 다른 범주유형에 비해서 반응이 빨랐고 사건범주의 반응이 빠른 경향을 보였다($p=.06$). 반면에 인생은 아름다워 점화조건은 대상범주와 인지범주의 반응시간이 빨랐다($p=.02$). 즉 한국 문화의 단서인 서편제는 대상과 원인사건 유형이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쳤으며, 외국 문화의 단서인 인생은 아름다워는 대상과 인지 유형이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두 영화의 점화효과는 사건원인과 인지 범주에서 차이를 보였다.

종합 논의

선행연구인 Lee & Choi(2003)의 연구는 한(恨)이 복잡한 정서 체계를 넘어서 문화의 경험을 담은 담화적 표상을 내포하는 상위의 추상적 인지 체계임을 강조하였다. 한(恨)의 담화적 표상이 문화적 상황의 의미를 구성하고

표 7. 문화유형과 실험재료의 담화적 범주유형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N=64)

단어 범주	서편제		한(恨) 단어		인생은 아름다워		통제조건	
	M	SE	M	SE	M	SE	M	SE
대상 단어	524	5.9	525	5.9	521	5.8	536	8.3
사건 단어	527	5.9	546	5.9	540	8.9	546	8.5
정서 단어	536	5.4	546	5.4	542	5.4	566	7.7
인지 단어	532	5.2	548	5.1	532	5.1	548	7.3

* M = 평균, SE = 표준오차

있다면 인지적 표상은 경험의 상황과 추상적 언어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Lee & Lee, 1998). 문화적 표상은 고정된 안정적 표상 체계이기보다는 문화적 맥락과 시대의 변화에 역동적인 표상 체계로 간주되기도 한다(Plotkin, 1996). 한(恨)의 인지적 표상이 문화적 맥락과 시대적 변화에 역동적이고, 그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면, 언어-공간-시간 차원의 관계인 마음의 표상에 보다 접근할 수 있다고 이 연구는 가정하였다. 한(恨) 언어는 문화에 따라 차별되는 표상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졌다(예; Choi, 2011). 언어상대성 이론에서는 언어 간의 명확한 번역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사례로 다양한 문화는 다양한 언어를 생성하였고 그 의미는 문화의 벽을 넘어서는 의미 해석이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권의 '사랑'이나 '멜랑콜리', 덴마크의 'Hygge', 중국의 '緣分', 일본의 '아마에' 등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문화 특정한 어휘이며, 한(恨) 또한 문화적 어휘로 비견될 수 있다. 더욱이 문화적 어휘나 개념의 시간적 변화 패턴은 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특정 문화 내에서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비교하거나 세대별로 횡

단적 비교를 하는 방법이 고작이었다. 이 연구는 한(恨) 어휘의 공간적 문화와 시간적 세대의 표상 차이를 현재 2019년도 대학생 참가자의 언어처리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심리학적 맥락에서 Lee & Choi(2003)는 한(恨) 표상에서 문화적 경험의 담화적 표상을 유추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한 가정은 한국인의 문화적 어휘인 한(恨)의 연상단어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여인'과 '눈물'이 가장 높은 연상적 생성 빈도를 보였고, 한(恨) 연상단어의 평정치 역시 '맺힘'의 연합 강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연상단어는 유형을 담화 범주로 분류되었을 때, 참조 대상, 사건 원인, 정서, 행위 및 상태 등의 순으로 고루 분포되었으며, 한(恨) 무관한 단어보다 점화효과가 높았음을 관찰하였다(예; Lee & Choi, 2003). 더욱이 한(恨)의 언어적 분석을 추가하면 한(恨)의 문화적 의미가 보다 분명해 진다. 일반적으로 한(恨)은 정서적 의미 어휘로 보았지만 일치하는 기본 정서와 대응되는 어휘를 찾기 어려우며, 한(恨)은 다양한 복합어를 하위 유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인 관계의 질에 따라 '정한'과 '원한'이 있으며, 시간에 따라 '회한'과 '여한'

이 있으며, 자신에 대한 인지, 동기, 행위 등을 의미하는 ‘자한’, ‘망한’, ‘해한’의 한(恨) 유형이 있다. 이외에도 한(恨)은 ‘한풀이’나 ‘한스러움’처럼 다양한 어휘와 연합되어 행위나 비유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한(恨) 연관 어휘를 조합하면, 한(恨)은 의미의 명제 나아가 담화로 비교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명제와 담화 연결을 구성하면 한(恨)은 그 자체로 문화적 의미를 상징하는 상위의 추상적 개념 혹은 도식일 수도 있다.

한(恨) 어휘의 개념적 표상이 시간의 흐름 혹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은 있는가? 이 연구의 주요 물음이었다. 이 연구는 세대를 정의하기 위해서 Mannheim(1952)의 세대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세대의 시작은 청소년기이며 세대의 단위는 20-30년이며 세대는 역사적 발달적 의미를 제공하는 의미 공간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는 1994년도 대학생과 2019년도 대학생의 비교이다. 두 독립된 세대의 참가자는 동일한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으며 유사한 코호트 연령이며 한 생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참가자가 동일한 설문지와 실험과제를 수행하였다면 두 참가자의 수행 결과의 비교는 문화심리학의 세대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이 연구는 가정하였다(예; Nilsen & Brannen, 2014). 이 연구의 두 실험은 세대변인에서 1994년도 대학생 자료를 2019년도 대학생 자료에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두 연도의 참가자 반응에서 질적 양적 차이를 보였다. 실험 1의 단서 회상적 생성과제에서 한(恨)의 ‘슬픔’, ‘억울함’, ‘분노’, ‘원한’, ‘정서’ 등의 정서 단어가 ‘민족’, ‘여인’, ‘흰옷’, ‘눈물’, ‘고통’, ‘억압’, ‘가난’, ‘일제’, ‘어머니’ 등의 대상 단어보

다 생성 빈도가 높았다. 또한 재인기억 유사 평정과제에서 한(恨) 관련 평정치가 높았던 ‘맺힘’, ‘정신대’, ‘이산가족’, ‘서러움’ 등의 단어가 1994년도보다 2019년도 자료에서 보다 낮게 평정하였다. 다중접근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빈도나 평정치의 관찰 자료가 반응시간의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어야 한다. 반면에 실험 2에서는 1994년도보다 높은 빈도를 얻거나 평정치가 높은 단어의 반응시간이 동일하거나 낮은 단어보다 반응시간이 오히려 느렸다. 즉 높은 빈도와 높은 평정치가 빠른 반응시간으로 관찰되지는 않았다. 생성, 평정, 명명 과제 간의 해리가 발생한 것이다.

세대유형과 과제유형의 해리적 상호작용의 한 가지 가능성은 적용 과제와 기억 과정의 차이이다. 생성과제나 평정과제는 기억의 의식적 탐색과 반응의 판단을 위한 의도적 전략이 작용하는 반면 명명과제는 그러한 판단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실험의 조건도 매우 순간적인 기억이 작용하도록 조작된 절차이다(예; Lee, 2012a; 2012b; Lee, Choi, Lee, 2018). 두 실험의 상반된 결과는 외현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의 해리나 전략적 과정과 자동적 과정의 해리적 현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즉 생성빈도나 평정치에 반영된 반응은 보다 의도적인 외현적 기억과 전략적 과정을 반영하며, 상대적으로 명명과제는 암묵적 기억과 자동적 과정에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해석된다(De Houwer et al., 2001; Glaser & Banaji, 1999; Herring et al., 2013; Lee, 2017; Lee et al., 2018). 문화적 맥락에서 한(恨)에 대한 외현적 의미는 ‘슬픔’, ‘정서’, 혹은 ‘억울함’이 우세하지만 암묵적 의미는 ‘민족’, ‘여인’, 혹은 ‘눈물’이 우세하다고 보겠다. 이는 한(恨)의 문화적 표상도 세대에 따라 인지적 표상의 의식 수준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恨)의 다원적 접근은 문화적 표상이 시대적 세대와 의식 수준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예; Mannheim, 1952). 2019년도 세대는 의식적인 과제에서는 한(恨)과 정서의 연합이 강하였지만, 암묵적인 과제에서는 오히려 1994년도 우세조건과 두 세대가 일치하는 조건의 단어에 문화적 점화가 민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대유형과 과제유형의 상호작용에 더하여 점화하는 문화유형도 과제유형과 상호작용을 하였다. 즉 생성과제는 문화유형의 점화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평정과제는 문화유형의 점화조건이 서편제와 인생은 아름다위에 비해서 한(恨) 단어의 반응시간이 느렸다. 이는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서편제가 서양문화의 단서인 인생은 아름다위와 한(恨) 관련 단어의 점화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한(恨)의 유형에 해당하는 단어를 점화한 조건인 한(恨) 관련 단어인 '정한', '한풀이' 등의 점화가 영화 점화보다 명명시간이 느린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들 단어는 '한(恨)'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들 단어가 한(恨)의 연상단어 즉 한(恨)의 의미를 촉진적으로 점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억제적으로 점화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점화-목표 자극 간에 과잉 불일치되는 요인이 잠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Glaser & Banaji, 1999). 부연하면, 한(恨) 유형의 단어는 어휘의 사용빈도도 10만 단어 당 1-10 빈도에 불과하였고(Kim, 2005), 대부분의 참가자는 한(恨) 유형 단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명명과제는 점화-목표 자극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면 역점화(reversed priming) 현상이 발생한다(예; Glaser & Banaji, 1999). Lee, Choi, Lee(2018)는 SOA

300ms 조건에서는 외상 사건 점화(예; '세월호')가 각성 정서 단어(예; '공포')와 의미적으로 연합이 되지만 반응이 느려지는 역점화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SOA 1000ms 조건에서는 촉진적 점화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자한' 점화가 '원한' 반응을 느리게 한 이유는 비록 둘은 한(恨) 연관 의미 관계이지만 두 단어의 빈도가 너무 낮거나 관련이 적다는 과잉 불일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는 추후 두 단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검정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 또한 문화적 지식의 영성한 표상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보겠다(예; D'Andrade, 1981; 1990; 2002).

문화 연구는 대부분 문화의 특성이나 차이를 국가 단위로 구분한다. 서양은 대비되는 문화로 동양을 든다(Clobert et al., 2019; Triandis & Suh, 2002). 그러면 한국영화와 서양영화의 문화적 점화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 무엇보다 자극의 문화적 특성이다. 두 자극 모두 영화 장면이지만 서편제는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영화이며 인생은 아름다위는 서양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이다. 서편제는 공간적 배경이 한국이며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이며 주인공 역시 한국인이다. 인생은 아름다위는 공간적 배경이 유럽이며 시대적 배경은 나치의 강제수용소이며 주인공도 유대인이다. 두 영화는 각각 다른 문화적 단서를 점화할 수 있다(Aydinli & Bender, 2015; Yampolsky et al., 2013). 예를 들어 Oyserman (2011)은 문화적 단서가 다른 문화를 점화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언어와 상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텍스트의 단수와 복수 대명사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를 점화할 수 있으며, 이중문화의 이민자

에게 중국 상징과 미국 상징을 제시하여 이중 문화의 표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미 Lee & Choi(2003)는 단순 상징을 넘어서 서편제를 단서로 하여 한(恨) 어휘의 점화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 2는 한국문화와 서양문화를 대표하는 영화 장면을 점화하여 두 문화의 점화 차이가 세대변인과 한(恨) 어휘의 점화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지를 관찰한 것이다. 한국문화와 서양문화의 영화 장면을 점화한 결과, 두 문화 영화의 점화 차이가 통계적인 차이에는 민감하지 않았다. 이는 문화가 국가 단위나 지역을 근거로 구분하는 문화의 범주화 이론에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한 증거로 이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겠다(예; Greenfield, 2017).

그러면 영화 점화가 전혀 문화점화를 촉진하지 못한 것인가?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 참가자는 영화 ‘서편제’나 ‘인생은 아름다워’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반응한 비율이 80%를 넘었다. 두 영화를 시청한 참가자도 있었지만 그들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비시청 참가자와 동일하였다. 이 연구의 문화자극은 실제 접하지 못했거나 그 접한 빈도가 매우 낮은 자극임을 의미한다. 또한 실험 2의 32명의 참가자에게 문화유형 점화조건에 점화조건 비제시 조건을 추가한 실험은 표 7에서 보였듯이 문화점화가 통제조건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빨랐다. 한국과 서양 영화의 점화효과가 유사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였듯이 1994년도와 2019년도의 한(恨) 빈도나 평정치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서편제 점화가 한(恨) 단어나 인생은 아름다워보다 점화효과가 촉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문화유형과 세대유형의 이원상호작용이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세대유형별로 문화유형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1994년도 우세수준이나 2019년도 우세수준의 조건은 서편제 점화와 인생은 아름다워 점화의 차이가 없었지만, 1994년도와 2019년도 동일조건에서는 서편제 점화가 한(恨) 단어 점화와 인생은 아름다워 점화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참가자는 2019년도 대학생이지만 실험재료가 두 세대에 빈도와 평정치가 일치하는 한(恨) 어휘는 한국문화의 세대적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세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한(恨) 표상의 언어적 의미가 성기게 전이되고 있다는 증거이다(예; D'Andrade, 1981; 1990; 2002). 보다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한(恨)의 표상의 특성은 무엇인가? Lee & Choi(2003)는 한(恨) 어휘의 표상이 담화적 수준으로 구성된다면 한(恨) 표상의 담화적 의미 구조의 표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언어의 표상은 언어가 지칭하는 세계의 상황을 표상하는 기능을 지닌다. 특히 한(恨) 단어의 감각과 지각 그리고 개념과 정서 수준의 처리가 기억에서 일어나는 심적 과정이라면 최상의 언어적 심적 표상은 언어가 지칭하는 문화적 상황모델의 표상일 것이다 (Conway & Jobson, 2012; Lee & Lee, 1998; Zwaan & Radvansky, 1998). 한(恨)의 어휘 수준의 점화는 ‘여인’, ‘민족’, ‘일제’, ‘분노’, ‘고통’, ‘맺힘’ 등의 어휘를 기억에서 자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생성하고(자유생성과제), 그 단어가 한(恨)의 어휘와 관련성이 높다는 의식적 판단을 하였고(평정과제), 한(恨) 문화의 영화는 한(恨) 어휘의 기억 접근성(accessibility)에 촉진적인 영향을 미쳐 명명시간을 빠르게 하였다. 담화는 이야기 구조이며 주인공, 시공간 배경, 사건의 일화, 주인공의 정서, 그로 인한

행위나 상태의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한(恨)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복잡한 의미 요소들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며 그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한(恨)을 어휘 수준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담화 수준의 문화 개념적 표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천씨: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송화: '예. 저 소리가 저 사람의 복장단을 만났을 때
번에 동생인지 알아챘죠' ...
천씨: '...왜 서로 모른척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송화: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천씨: '무슨 한이 그렇게도 깊이 맺혔단다,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헤어졌단 말이야.'
송화: '우린 간밤에 한을 풀어냈어요.'
천씨: '어떻게?'
송화: '지 소리하고 동생의 복으로요.'
천씨: '어쩐지 입자 소리가 예전하고 썩 다르다 했더니 만은...'

그림 2. 서편제(Im, 1993)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송화와 천씨의 대화 내용(Lee & Choi, 2003, 8쪽)

그림 2는 서편제의 마지막 장면의 송화와 천씨의 대화 내용이다. 과연 1994년도 대학생과 2019년도 대학생의 담화 표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두 세대의 대학생 참가자는 이 대화를 한(恨)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다음 연구의 물음을 제기하여 본다. 영화 '서편제'에서 오랜 그리움으로 만난 '송화'와 '동호'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였지만 소리를 통해서 한(恨)을 풀어내면서 서로의 길을 가게 된다(Im, 1993). 이 영화의 '한(恨)의 깊이', '한(恨)의 다짐', '한(恨)의 풀어냄' 등의 대화가 두 세대의 한(恨) 담화 표상이 동일하게 형성되는가? 이에 비해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이차대전을 배경으로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 잡혀간 아빠 '귀도'의 죽음에 대한 슬픔 정서가 있었지만, 종전으로 아들 '조슈아'와 엄마 '도라' 모자가 상봉하는 기쁨 정서로 마감된다(Benigni, 1997). 두 영화는 한국과 서양의 문화적 담화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다원적 방법론적 맥락에서 한(恨)의 담화적 특성에 대한 점화명명과제에서 얻어진 증거는 무엇인가? 선행연구인 Lee & Choi(2003)는 한(恨) 관련 어휘를 6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점화효과를 어휘판단과제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각 범주의 단어가 통제단어(예; 사람이름)보다 반응이 빨랐으며, 서편제 점화조건이 통제조건보다 6개 범주의 반응에 촉진적인 경향성만 관찰하였다. 실험 2는 점화조건을 SOA 300ms로 조작하고, 문화자극도 언어와 장면의 3 수준으로 조작하고 명명과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조작은 문화적 자극의 점화효과를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조건이다. 명명과제는 이미 내재적 암묵적 표상에 민감하며(Balota et al., 1986), 무관련 자극의 억제과정에도 민감하며(Lee et al., 2018), 실험 자극의 맥락 변화에도 영향을 덜 받으며(De Houwer et al., 2001; Herring et al., 2013), 반응시간이 매우 짧고(평균 400-500ms) 그 변산도 적다(표준오차 10-20ms)는 과제 특성을 지니고 있다(Lee, 2012a; 2012b). 실험 2의 문화유형과 담화범주의 요인설계를 적용한 분석에서, 실험 단어는 4개의 범주로 조작되었다. 즉 대상(구체, 추상) 단어(예; '여인', '민족'), 사건 원인(예; '일제'), 정서 단어(예; '슬픔'), 인지(행위와 상태 포함) 단어(예; '맺힘')이다. 그 결과, 범주 단어가 통제조건에 비해서 점화명명시간이 빨랐고, 비록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범주 별로 문화유형의 점화효과가 달랐다. 구체적으로 '서편

제' 접화는 대상과 원인 단어의 접화효과가 두드러졌으며, 반면에 '인생은 아름다워' 접화는 대상과 인지 단어의 접화효과가 있었다. 두 영화의 접화에서 관찰된 담화유형의 공통과 차이는 특정 문화와 다 문화의 역동적 관계를 시사한다. 한(恨)의 영상적 접화는 문화적 담화의 참조적 표상(referential representation)과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인과적 추론(causal inference)이 암묵적으로 활성화하고 확산되어갈 가능성을 시사한다(예; D'Andrade, 2002; Lee & Lee, 1998; 2005). 담화의 참조와 인과 추론은 선행 담화의 역행 추론과 후행 담화의 전진적 정교화 추론에 필수적이며 담화의 전체적 응집성을 형성하는 상황적 기반을 형성해 준다(Graesser et al., 1994; Lee & Lee, 1998; 1999; 2005; van Dijk & Kintsch, 1983; Zwaan & Radvansky, 1998). 특히 서편제 영화의 접화효과는 선행연구의 Lee & Choi(2003)에서 적용된 어휘판단과제보다 이 연구의 실험에서 적용된 명명과제가 문화와 담화의 범주유형에 대한 접근 민감성이 보다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Lee & Choi(2003)의 연구를 2019년도의 대학생 참가자에게 반복하고 문화변인과 세대변인 그리고 과제변인을 추가 조건으로 체계화하여 한(恨) 어휘의 문화적 표상을 관찰하였다. 적어도 한(恨) 어휘의 문화적 의미가 25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1990년대와 2020년대는 한(恨) 어휘에 대한 의미가 점차 '정서' 의미로 표상됨을 자유생성과제의 빈도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한(恨) 관련 단어의 평정치 자료는 한(恨) 연상단어의 전반적인 의미적 강도가 약해지고 있음을 보였다. 셋째, 비록 한(恨) 어휘이지만 명명과제에서는 오히려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현상도 관찰하였으며,

넷째, 그렇지만 한(恨) 표상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의식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도 관찰되었다. 비록 한(恨) 어휘의 외현적 수준의 의미가 시간적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수준의 한(恨) 어휘는 전통적 문화적 의미의 잔재가 아직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관찰하였다.

지금부터 다시 25년이 지나면 한(恨)의 문화적 표상은 시대를 타고 어떻게 변화할까? 영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시하면 그 효과가 어떠할까? 접화과제의 SOA를 변화시키면 또한 접화효과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그러한 시간적 세대와 특정 문화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한(恨)이라는 문화적 언어를 사용하여 정교한 실험 연구로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Atran, S., & Medin, D. L. (2008). *The native mind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nature*. MIT Press.
<https://doi.org/10.7551/mitpress/7683.001.0001>
- Aydinli, A., & Bender, M. (2015). Cultural priming as a tool to understand multiculturalism and culture.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https://doi.org/10.9707/2307-0919.1134>
- Balota, D. A., & Lorch, R. F., Jr. (1986). Depth of automatic spreading activation: Mediated priming effects in pronunciation but not in lexical decis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 12(3), 336-345.
<https://doi.org/10.1037/0278-7393.12.3.336>
- Bang, Y. S., & Lee, J. H. (2007). Aspects of the conceptualization of HAN. *Korean Semantics*, 22, 95-121. UCI:G704-001001.2007.22..002
- Barsalou, L. W. (1999). Perceptual symbol systems. *Behavioral Brain Science*, 22(4), 577-660.
<https://doi.org/10.1017/S0140525X99002149>
- Benigni, R. (Director). (1997). *Life is beautiful* [Film]. Cecchi Gori Group.
- Chafe, W. (1990). Some things that narratives tell us about the mind. In B. K. Britten & A. D. Pellegrini (Eds.), *Narrative thought and narrative languag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hiu, C. Y., & Cheng, S. Y. Y. (2007).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culture and globalization: Some social cognitive consequences of activating two cultures simultaneousl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 84-100.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17.x>
- Choi, S. C. (1994). Sim-Cheong Psychology: The phenomenological comprehension for Cheong and HAN. *Proceedings for Annual Meeting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21.
- Choi, S. C. (2011). *Korean Psychology*. Hakjisa. ISBN: 978-89-6330-612-4
- Choi, S. C., & Han, G. S. (2000). Methodology in cultural psycholog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4(2), 123-144.
- Clobert, M., Sims, T. L., Yoo, J., Miyamoto, Y., Markus, H. R., Karasawa, M., & Levine, C. S. (2019). Feeling excited or taking a bath: Do distinct pathways underlie the positive affect - health link in the U.S. and Japan? *Emotion*.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dx.doi.org/10.1037/emo0000531>
- Conway, M. A. (2005). Memory and the self.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3(4), 594-628.
<https://doi.org/10.1016/j.jml.2005.08.005>
- Conway, M., & Jobson, L. (2012). On the nature of autobiographical memory. In D. Berntsen & D. Rubin (Eds.), *Understanding autobiographical memory: Theories and approaches* (pp. 54-69).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1139021937.006>
- Corsten, M. (1999). The time of generation. *Time & Society*, 8, 249-272.
<https://doi.org/10.1177/0961463X99008002003>
- Cousins, S. D. (1989). Culture and self-percep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124-131.
<https://doi.org/10.1037/0022-3514.56.1.124>
- D'Andrade R. G. (1981). The cultural part of cognition. *Cognitive Science*, 5(3), 179-195.
[https://doi.org/10.1016/S0364-0213\(81\)80012-2](https://doi.org/10.1016/S0364-0213(81)80012-2)
- D'Andrade, R. (1990). Some propositions about the relations between culture and human cognition. In J. W. Stigler, R. A. Shweder, & G. Herdt, (Eds.),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pp. 65-129).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1139173728.004>
- D'Andrade R. (2002). Cultural darwinism and language. *American Anthropologist*, 104(1), 223-232. <http://www.jstor.org/stable/683772>
-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s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1), 85-91.
<https://doi.org/10.1006/jesp.2000.1437>
- DiMaggio, P. (1997). Culture and cogni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263-287.
<http://doi:10.1146/Annurev.Soc.23.1.263>
- DiMaggio, P., & Markus, H. R. (2010). Culture and social psychology: Converging perspectiv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3(4), 347-352.
<https://doi.org/10.1177/0190272510389010>
- Glaser, J., & Banaji, M. R. (1999). When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Reverse priming in automatic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669-687.
<https://doi.org/10.1037/0022-3514.77.4.669>
- Graesser, A. C., Singer, M., & Trabasso, T. (1994). Constructing inferences during narrative text comprehension. *Psychological Review*, 101(3), 371-395.
<https://doi.org/10.1037/0033-295X.101.3.371>
- Greenfield, P. M. (2000). Three approaches to the psychology of culture: Where do they come from? Where can they go?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23-240.
<https://doi.org/10.1111/1467-839X.00066>
- Greenfield, P. M. (2017). Cultural change over time: Why replicability should not be the gold standard in psychological sci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5), 762-771.
<https://doi.org/10.1177/1745691617707314>
- Heger, I. (2015). The meaning and functions of the concept of yuanfen 缘分 in contemporary China: A qualitative study with students from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Vienn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7, 129-163.
<https://doi.org/10.2478/vjeas-2015-0005>
- Herring, D. R., White, K. R., Jabeen, L. N., Hinojos, M., Terrazas, G., Reyes, S. M., Taylor, J. H., & Crites, S. L., Jr. (2013).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A quarter century of evaluative priming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39(5), 1062-1089.
<https://doi.org/10.1037/a0031309>
- Hong, Y., Morris, M. W., Chiu, C., & Benet-Marti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7), 709-720.
<https://doi.org/10.1037/0003-066X.55.7.709>
- Im, K. T. (Director). (1993). *Seopyeonje* [Film]. Taehung Pictures.
- Kim, H. S. (2005). *Modern Korean language frequency survey 2*.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Lee, J. B. (2020). The traditional aesthetics of Lee Dong-Ju's poetry: Focused on the world of bitter feeling, exhilaration, and shade. *Journal of Korean Literary Criticism*, 67, 5-35.
<https://doi.org/10.35832/kmlc..67.202009.5>
- Lee, J. H. (2012a). The difference of social cognitive representation for personal pronouns 'I' and 'You'.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12(2), 31, 261-278.
- Lee, J. H. (2012b). The difference of emotional evaluation for personal pronoun 'I' and 'You'.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3(3), 323-348.
- Lee, J. H. (2017). The difference of social and cognitive representation between 'I' and 'We'.

-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4(1), 137-160.
<https://doi.org/10.22257/kjp.2017.03.36.1.137>
- Lee, J. H., & Kim, S. I. (1998). The research methods for language comprehension. In J. M. Lee & J. H. Lee (Eds.), *Issues in Cognitive Psychology II: Language and Cognition* (pp. 155-182). Hakjisa.
- Lee, J. H., & Choi, S. C. (2003). Cognitive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cultural concept: Discourse analysis and on-line priming effects on "HA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7(1), 1-16.
- Lee, J. H., Choi, Y. K., & Lee, H. S. (2018). The failure of automatic emotion regulation of PTSD in priming paradigm.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360-381.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8>
- Lee, J. H., & Lee, J. M. (1999). On-line generation of elaborative inference: Predictive inference. *Korean Journal of Experimental and Cognitive Psychology*, 11(2), 261 - 276.
- Lee, J. M., & Lee, J. H. (1998). The psychological processing of text comprehension. In J. M. Lee & J. H. Lee (Eds.), *Issues in Cognitive Psychology II: Language and Cognition* (pp. 179-118). Hakjisa.
- Lee, J. M., & Lee, J. H. (2005). Contrastive information processing in discourse comprehension.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6(2), 69-92.
- Lizardo, O. (2017). Improving cultural analysis: Considering personal culture in its declarative and nondeclarative mo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2(1), 88-115.
<https://doi.org/10.1177/0003122416675175>
- Magliano, J. P., & Graesser, A. C. (1991). A three-pronged method for studying inference generation in literary text. *Poetics*, 20(3), 193-232.
[https://doi.org/10.1016/0304-422X\(91\)90007-C](https://doi.org/10.1016/0304-422X(91)90007-C)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 in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pp. 276-320).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first published in German 1928 in *Kölne Vierjahreshuafte für Soziologie*, 157-85, 309-30].
https://springer.com/10.1057/9781137011565_3
- McCabe, D. P., Roediger, H. L., & Karpicke, J. D. (2011). Automatic processing influences free recall: converging evidence from the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 and remember-know judgments. *Memory and Cognition*, 39(3), 389-402.
<https://doi.org/10.3758/s13421-010-0040-5>
- Niiya, Y., Ellsworth, P. C., & Yamaguchi, S. (2006). Amai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 exploration of a 'culturally unique' emotion. *Emotion*, 6(2), 279-295.
<https://doi.org/10.1037/1528-3542.6.2.279>
- Nilsen, A., & Brannen, J. (2014). An intergenerational approach to transitions to adulthood: The importance of history and biography.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19(2), 9.
<https://doi.org/10.5153/sro.3396>
- Oyserman, D. (2011).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Cultural mindsets, cultural fluency, and meaning making.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2(1), 164-214.
<http://dx.doi.org/10.1080/10463283.2011.627187>

- Oyserman, D., & Yan, V. X. (2019). Making meaning: A culture-assituated cognition approach to the consequences of cultural fluency and disfluency. In D. Cohen & S. Kitayama (Eds.),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2nd ed., pp. 536-565). The Guilford Press.
- Pilcher, J. (1994). Mannheim's sociology of generations: An undervalued legac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5(3), 481-495. <https://doi.org/10.2307/591659>
- Plotkin, H. (1996). Some psychological mechanisms of culture. *Philosophica*, 57(1), 91-106.
- Rathbone, C. J., Moulin, C. J. A., & Conway, M. A. (2008). Self-centered memories: The reminiscence bump and the self. *Memory & Cognition*, 36(8), 1403-1414. <https://doi.org/10.3758/MC.36.8.1403>
- Roo, Y. S. (2020). A critical review on the Han (恨)'s contents i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Education*, 45, 117-148. <https://doi.org/10.17319/cle.2020..45.117>
- Ryder, N.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61. <https://doi.org/10.2307/2090964>
- Santos, H., Varnum, M. E. W., & Grossmann, I. (2017). Global increases individualism, *Psychological Science*, 28(9), 1228-1239. <https://doi.org/10.1177/0956797617700622>
- Schank, R. C. (1986). *Explanation patterns: Understanding mechanically and creativel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Triandis, H., & Suh, E. (2002). Cultural influences on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133-160. <https://doi.org/10.1146/100901.135200>
- van Dijk, T. A.,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Academic Press.
- Yampolsky, M. A., Amiot, C. E., & de la Sablonnière, R. (2013). Mult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 and well-being: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variations in narrative coherence and multicultural identification. *Frontiers in Cultural Psychology*, 4, Article 126. <https://doi.org/10.3389/fpsyg.2013.00126>
- Yang, K. S., & Ho, D. Y. F. (1988). The role of the yuan in Chinese social life: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In A. C. Paranjpe, D. Y. F. Ho, & R. W. Rieber (Eds.), *Asian contributions to psychology* (pp. 263-281). Praeger Publishers.
- Zwaan, R. A., & Radvansky, G. A. (1998). Situation models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123(2), 162-185. <https://doi.org/10.1037/0033-2909.123.2.162>

1차원고접수 : 2021. 02. 15.
 2차원고접수 : 2021. 06. 18.
 3차원고접수 : 2021. 07. 05.
 최종게재결정 : 2021. 08. 11.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21, Vol. 40, No. 3, 269-299

<http://dx.doi.org/10.22257/kjp.2021.9.40.3.269>

The Generational Difference of HAN Representations for Korean

Jae-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Keimyung University

Han (恨) is known as a cultural concept that contains the minds of Korean. Lee & Choi (2003) applied a multi-task method to college students of 1994 to identify the cultural representation of Han (恨). The result confirmed the possibility that Han (恨) could represent the cultural experience of Korean discourse beyond emotion. This study raised the need to verify the process of changing the cultural meaning of Han (恨) according to the times, and tried to compare the generational difference of Han (恨) representation by elaborating the method of previous studies. Experiment 1 observed the generational difference in the representation of Han (恨) with the free generation task and the rating task. The main result is that the generation frequency and rating strength of emotion words increased in the 2019 generation than in the 1994 generation, but the type of generated words and the rating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Experiment 2 showed that the naming time of the 1994 generation word was faster than the 2019 generation word, the cultural stimulus and the generational variable interacted with the task type, and the priming of the cultural variable was facilitat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frequency and rating of the two generations coincide. The results were observed in the primed naming task. The two experiments showed that generations cause differences in the representation of cultural stimuli, and that the representation of Han (恨) was changed according to the generation. The 2019 generation represented Han (恨) more emotionally at the explicit level than the 1994 generation, but maintained the representation in which the meaning of the reference object and the cause of the event still persists at the implicit level.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incremental and dynamic changes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cultural Han (恨) concept using an elaborated experimental method.

Key words : HAN, culture, generation, naming task, discourse

부록 1. 실험 1의 恨 설문지에 사용된 질문 (Lee & Choi, 2003)

-
- 질문 1. 자신은 恨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 예, (2) 아니오 ()
- 질문 2. 만약 자신이 恨을 경험했다면, 무엇이 恨을 일으키게 했다고 생각하나? (恨의 원인은)
- 질문 3. 일반적으로 恨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순서로)
- 질문 4. “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 떠오르는 순서로 기입하십시오.
- 질문 5. 자신은 “恨”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 질문 6. 만약 자신이 恨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마음의 상태를 기술하여 보라.
- 질문 7. 만약 자신에게 恨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는가?
- 질문 8. 만약 자신에게 恨이 발생했다면,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질문 9. 다른 사람이 恨을 경험한다고 호소한다면, 자신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 질문 10. 자신은 恨이 한국인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 예, (2) 아니오 ()
- 질문 11. 만약 恨이 한국인에 고유하다면, 그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부록 2. 실험 2에서 문화점화자극으로 사용한 실험재료 (서편제, Im, 1993; 인생은 아름다워, Benigni, 1997)



부록 3. 실험 2에서 세대목표자극으로 사용한 실험재료

* 생성과제의 빈도에 기반한 실험재료

- 1994년도 우세조건: 절망, 복수, 어머니, 억압, 가난, 인내, 눈물, 일제, 흰옷, 고통, 여인, 민족
- 2019년도 우세조건: 억울함, 슬픔, 귀신, 후회, 분노, 정서, 원한, 원망, 답답함, 안타까움, 맺힘, 그리움
- 두 연도 동일조건: 자책, 정신대, 한국인, 탄식, 이산가족, 가슴앓이, 이별, 한숨, 고아, 서러움, 죽음, 사랑

* 평정과제의 평정치에 기반한 실험재료

- 1994년도 우세조건: 마음, 세월, 정신대, 가난, 시련, 압박, 그리움, 서러움, 슬픔, 답답함, 맺힘, 눈물
- 2019년도 우세조건: 가야금, 장례식, 초가집, 갈등, 죽음, 차별대우, 공격성, 죄책감, 희망, 저항, 파괴, 집념
- 두 연도 동일조건: 민족, 여인, 이산가족, 이별, 일제, 타향, 억울함, 고통, 피로움, 승화, 탄식, 복수